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7호 HYUNBULNEWS.COM 2026년 2월 18일(음력 1월 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옻칠 회화 담긴 연못에 연등 띄우니 경기도박물관은 5월 31일까지 박물관 전시마루에서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수행과 예술 세계의 진수가 담긴 작품 150여 점이 선보인다. 사진은 2월 10일 열린 개막식에서 성파 스님과 주요 내빈들이 6m 규모의 수중 설치 옻칠 회화에 연등을 띄우는 모습. 〈관련기사 9면〉
글=신중일 기자, 사진 제공=경기도박물관

천도재 여니 '조세이 희생자 유골' 나왔다

관음종, 2월 6일 현지서
희생자 위한 천도재 봉행
수습 유골 모시고 회향해
대만 다이버 사망에 '애도'
관음종 "한일 정부 나서야"

신중일 · 김내영 기자

관음종(총무원장 권한대행 도각 스님)이 2월 6일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던 중, 해저 갱도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1점이 추가 수습됐다. 관음종의 지속적인 유해 수습·봉환 노력 속에서 이뤄진 뜻깊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관음종은 "2월 6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조세이탄광 갱도 입구에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하던 중 희생자 유골이 추가 수습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수중 조사에서 인골 4점을 발견한 데 이어 2번째다.

관음종에 따르면 천도재가 엄수되던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유골 수습을 위한 잠수 조사를 진행하던 현장팀으로부터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관음종은 즉시 피야가 보이는 해변가로 자리를 옮겨 제단을 마련하고 새롭게 수습된 유해를 모신 가운데 천도재를 회향했다.

천도재는 올해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해 DNA 감정 추진' 이후 본격화된 대규모 발굴 조사의 원만한 회향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세이탄광 일제강점기 희생자 유해 수습 기원 천도재' 봉행단장을 맡은 관음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각 스님은 "유족과 양국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침내 하늘에 닿았다"며 "차가운 바닷속에 계신 희생자 유골을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유해 수습 과정을 지켜본 총무부장 홍경 스님은 "80년 넘게 기다려 온 유족분들이 유해를 마주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며 "희생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하며, 이번에 수습된 유해에 대해 양국 정부의 합의대로 하루빨리 DNA 조사가 이루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2월 7일 조사와 유골 수습을 위해 바다로 뛰어든 대만 다이버 웨이 수 씨가 조사 도중 의식을 잃고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천도재를 봉행하며 유해 수습을 지원했던 관음종은 2월 9일 웨이 수 잠수사를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음종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애도하며 비통에 잠겨 있을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고인을 굽어 살피시어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관음종은 안전한 유해 수습과 조사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관음종은 "80년 넘게 방치된 해저 갱도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일은 민간의 열정과 십시일반의 후원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과제"라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해 수습을 위해서는 이제 한일 양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안전대책과 장비 투입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정상회담합의 사항인 'DNA 감정'을 조속히 진행하여 희생자들의 유해를 유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관음종은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 사업'을 선포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일본 현지에서 위령재를 봉행하며 조세이탄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불교신문과 관음종은 2월 2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한 해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나눔·현대불교신문 생명나눔 가치 알린다

2월 10일 MOU 체결
1년간 공동기획 진행
해외 지원사업 전개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2026년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글로벌 자비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은 2월 10일 서울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사무처에서 공동사업 협업 및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6년 한 해 동안 공동 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를 전개한다. 기획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고 국내 나눔 활동을 비롯해 해외 의료·문화 지원 사업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공동기획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와 해외 지원 사업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했다. 일면 스님은 먼저 "지난 몇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대한 기획과 각종 보도를 성의있게 다뤄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더 많은 이들이 생명나눔의 기쁨을 알고 자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함께해 온 만큼 생명나눔과 현대불교신문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하자"면서 "올 한 해 사업을 함께 잘 이끌어가서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대불교신문은 3년 전부터 매해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해외구호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지속적인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래 생명 존중과 나눔 실천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사회에 알리고 자비와 공존의 정신을 공유하는 데 힘써왔다"면서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 중 최고로 손꼽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올 한 해 긴밀하게 협력, 생명나눔 현장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를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 해외 지원 사업, 각종 캠페인 등을 올해 총 12회에 거쳐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은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을 방문, 올해 첫 해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은 2월 10일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사무처에서 공동사업 협업 및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제8회 묘공학술장학생 지원
- **지원 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통합과정 포함)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 **지원 기간** : 1년
- **선발 인원** : ○명(스님은 별도 전형)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1일(일)~31일(화)

※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9회 묘공학술상 변경

묘공당 대행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묘공학술상 선정 방식이 변경되어 진행합니다.
2027년 6월에 시상하는 제9회 묘공학술상의 심사 대상은 『한마음연구』 제17집(2026년 8월 발행)과 『한마음연구』 제18집(2027년 2월 발행)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특히 2027년 묘공당 대행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2026년에 모집하는 『한마음연구』 특별 주제는 "대행스님과 한국사회"와 "대행스님과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 (특별 주제가 아니어도 묘공학술상의 심사 후보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상 금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자세한 사항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 **발간 시기** :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 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 시기** : 연중 접수
-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 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행선연구원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yogong@daehaeng.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